

나주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성과 공유

우수사례발표·내년 사업설명회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 도모 나서 상구·신양 등 4곳 '우수 마을' 선정 으뜸마을 지정 사업비 200만원 지원



나주시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국립나주습지원에서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마을공동체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 도모에 나섰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개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지난달 26일 국립나주습지원 강당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 대표와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

들기' 우수마을 시상식을 시작으로 나주마을넷 소개, 우수사례 발표, 2025년도 사업설명회 및 사례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공산면 상구마을과 신양마을, 반남면 옥련마을과 신기마을, 이장동 오랑마을 등 4곳이다.

이들 마을에는 으뜸마을 현판과 함께 내년도 사업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의 특색을 한층 살린 주민 주도형 사업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역 개발·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 '커피 쿠폰' 증정

10만원 이상 기부 5천원 상당

나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나주시는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1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문자(SMS) 수신에 동의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5000원 상당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문자 메시지로 선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 중 약 30%의 기부자가 12월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감사 이벤트를 기획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

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나주시는 기부자를 위한 나주배, 삼겹·묵살세트, 나주사랑상품권 등 64개 품목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 이름 누리집 나주시 답례품 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속의 시민공감홍보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 마음을 전하고자 소소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풍성한 답례품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세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로 구성된 '말씀이 정비단'이 최근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세지면 지사협 '말씀이 정비단' 주거환경개선 봉사

나주시세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경선·조창수, 이하 세지면지사협)위원으로 구성된 '말씀이 정비단'이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의 장애인가구 및 독거노인 2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말씀이 정비단'은 집안 내외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당 정리와 함께 주방 싱크대도 교체

해 해당 가구 주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말씀이 정비단'은 세지면 지사협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특화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다.

조창수 위원장은 "말씀이 정비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

축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으로, 내년에는 대상 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세지면 지사협이 마을 공동체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선 세지면장은 "지역 위기가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지사협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365일 시간제 보육' 행안부 장관상 수상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 선정

나주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 주관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사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은 민선 8기 공약인 '영유아 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해 나주시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야근, 병원 진료·입원과 같은 사정으로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연중무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시 시간제 보육실은 지난해1호점 킨더브레인어린이집(빛가람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 2호점 남평어린이집(남평읍), 11월 3호점 궁전어린이집(송월동)을 지정, 운영해 주요 권역별 연중무휴 보

육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시는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인 '하루 365일의 특별한 약속, 연중무휴로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케어' 사례를 제출해 전체 12위로 우수상인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 전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이은 2년 연속 성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한 나주형 보육 정책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 또는 직장을 둔 부모의 생후 6개월에서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로,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365일 시간제 보육실은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자녀를 돌봐준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사회적경제인의 밤' 성료

23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약정 '더욱 행복한 지역사회로 발전'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나주 씨티호텔에서 '나주시 사회적경제인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노력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100여명의나주시 주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참여해 기부 물품 전달식과 상생·협력 퍼포먼스로 행사 의미를 한층 더했다.

지역사회에 2300만원 상당의 물품 기부를 약정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나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실천으로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이 있었다.

포상은 △시장 표창(농협회사법인만들평야 김희경 대표, 협동조합 성안사람들 김양순 이사장, ㈜미라클리너 김원식 대표, 다누리문화협동조합 정정경 이사장

△국회의원 표창 농업법인주식회사 삶앤스토리 박찬규 대표, 빛가람창의방송 서주화 대표, 사)농어촌 정보화 전남협회 제갈 영 사무처장, 사회적협동조합 케어팜덕옥 최현삼 이사장 △나주시의회 의장 표창 농업회사법인 문스팜㈜ 김광일 대표, 보광광영농조합법인 김만복 이사장, 농업회사법인(주)나주시골농장 나연실 대표, 농업회사법인(주)나주시농산물 박연자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해 온 사회적경제인들 덕분에 나주가 더욱 행복한 지역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시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